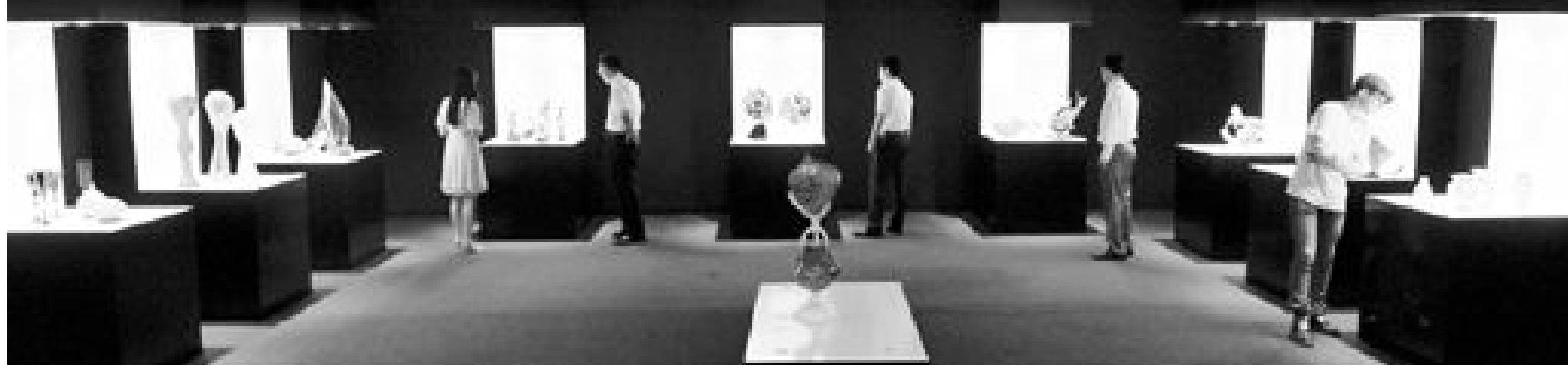


글라스 판타지아 100배 즐기기



이탈리아 전통 유리 공예의 향연 '베니스 글라스 판타지아'(VENICE GLASS FANTASIA)의 개막에 앞서 17일 열린 무료 관람에 참석한 관람객들이 형형색색의 유리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伊 거장 유리공예 시연 보고 작품도 받아가세요”

베니스 명품 150점 눈부신 상상력의 향연

‘말’ ‘해파리’ … 실물을 유리로 감싼 듯 생생

유리잔 연주·핸드프린팅 등 체험행사 풍성



“예뻐요”

천년의 신비를 간직한 이탈리아 유리 공예의 아름다움은 화려한 색과 우아한 곡선에 있다. 한 여성 관람객이 유리병 작품의 곡선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대한 작품세계를 보여준다.

특히 그의 ‘말’(Horse) 연작은 자신만의 독창적인 상상력을 접목한 거대 조형물로, 어느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최고의 명작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시에 소개되는 피노 시노레토 작품의 특징은 거대 조형물을 이어 붙이지 않고, 통째로 만들어 냈다는 점이다. 그는 1200~1500℃에 달하는 뜨거운 유리 재료를 긴 대롱에 매달아 입으로 불어 창작하는 전통 기법을 고집하고 있다. 입으로 부는 기법을 통해 가로 세로가 각각 1.6m가 넘는 거대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기술은 그가 혼자 중 가장 뛰어나다.

국내에서 이처럼 이탈리아 유리 공예 작품이 대규모로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유리 공예는 인간이 물을 이용해 만들어 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예술이다. 특히 전통 가공 기법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기 위해

베니스 무라노 섬에서 비밀스럽게 이어온 이탈리아 유리 공예의 모든 것이 이번 전시를 통하여 모두 공개된다.

◇알고 보면 더욱 알차요=신비에 싸인 베니스 무라노 섬의 ‘불 수사학’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유리 공예에 대한 기본 상식이 필요하다. 피노 시노레토는 이탈리아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유리공예 역사상 최고의 명장(마에스트로)으로 평가받고 있는 작가다. 그는 16세에 마에스트로 칭호를 부여 받았을 만큼, 다양한 기법과 예술성을 인정받고 있다. 매우 섬세하면서도 육중하며, 거

무리노 최고 공방인 스카이아본 가문의 대표 작품도 빼놓을 수 없는 수작이다. 유리 원료에 비밀리에 전수되어 온 이 가문의 비법인 철 성분을 넣어 독특하고 영롱한 빛깔을 만들어 내고 있다.

현대적인 디자인 감각과 화려한 색감이 스카이아본 가문의 특징이다. 직선과 곡선의 대비를 통해 유리가 만들어 낼 수 있는 아름

다양한 체험행사 놓치지 마세요=베니스 무라노 섬을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이번 전시를 통해 이탈리아 유리 공예 명인의 빼어난 손놀림을 광주에서 지켜볼 수 있다. 스카이아본 가문의 대표 작가 카티아(Katia)씨가 전시장에서 직접 작품을 만드는 특별 체험행사는 ‘베니스 글라스 판타지아’ 특별전

의 백미다.

장인이 유리 재료를 600도의 강한 불로 놓여 사탕·나비·꽃 등을 현장에서 만들어내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이다. 딱딱한 유리 재료가 불을 만나 녹은 뒤 각양각색의 모양과 색으로 변하는 과정이 모두 공개된다.

관람 안내

▲전시 기간=6월 19일~8월 22일 오전 10시~오후 8시(매주 월요일 휴관)

▲티켓 가격=어른 1만원, 청소년(중고생) 8000원, 어린이 6000원, 유아 4000원, 군·경·장애인 6천원. 20인 이상 할인 혜택 문의 062-511-0349.

특히 체험행사를 통해 만들어진 작품은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선착순으로 나눠주기 때문에 가족 단위 관람객들에게는 색다른 추억을 안겨줄 것이다.

아이들 체험학습은 풍성한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면 된다. 동영상은 현지 작가들의 작업실 곳곳을 보여주고, 창작의 전 과정을 생생하게 담아냈다. 또 이번 전시에 소개된 작품이 창작되는 모든 과정을 동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어 더욱 효과적인 교육의 장이 될 것이다.

투명한 유리잔에 물을 채워 놓은 뒤 잔 표면을 문질러 소리를 내는 ‘유리잔 연주’도 다른 체험행사다.

이 밖에 압화·천연비누 만들기, 핸드프린팅 등 초·중·고교생들을 위한 흥미로운 체험행사도 풍성하게 마련된다. 이들 행사는 3000~1만원의 재료비만 내면 누구나 즐길 수 있다.

한편 18일 오후 3시 광주 문화예술회관 전시장 일대에서 ‘베니스 글라스 판타지아’ 프레오픈·개막식 행사가 진행된다. 문의 062-511-0349.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법률 경쟁부동산의 블라인드 공고

